

광양 사회적기업 쑥쑥 자라네

포스플레이트 등 5개사 발굴·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광양시의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정책이 도입 6년 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9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나서=광양시는 지난 2009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1호 기업으로 (주)비엠펜씨를 인증을 시작으로 (주)포스플레이트, (주)더함자원, (주)희디자인, (주)모아나눔 등 5곳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잇따라 인증을 받아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주)비엠펜씨는 현재 13명이 작물 생육용 액비, 토양개량제, 산업부산물 재활용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출범한 일자리 제공형 기업인 '포스플레이트'의 경우 현재 184명의 직원들이 제철소 및 기술연구원 후판 시판가공, 후판제품 창고관리 등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포스플레이트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임금 무교섭 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 신규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를 이뤘고 있다.

이 밖에 2014년에 더함자원, 희디자인, 모아나눔 등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더함자원'은 폐합성수지 및 압축 가공업(화장지 등)을 하는 일자리 제공형 업체로, 12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업체다. '모아나눔'은 자동화 기계, 정수기 생산, 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8명에게 취일의 기회를 줬고, '희디자인'은 9명의 근로자가 의류 및 패션소품 제작, 관광상품 및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는 이들 업체가 생산한 복사용지, 문서기록 관리철, 화장지, 장갑 등의 제품들을 지난해 2억여 원 어치를 구매했다.

■ 광양시 사회적 기업

업체명	인증년도	근로자수	주 생산품
(주)비엠펜씨	2009년 11월	13명	작물 생육용 액비
(주)포스플레이트	2011년 5월	184명	후판 시판가공
(주)더함자원	2014년 5월	7명	폐합성수지 분쇄
(주)희디자인	2014년 5월	1명	의류·패션소품 제작
(주)모아나눔	2014년 12월	8명	정수기 생산 판매·관리

이들 사회적 기업은 인증 후 ▲창업 초기(사업인프라 구축) 1000만원 ▲사업 정착단계(기업경영 실용화) 5000만원 ▲사업 성장단계(기술집약형 모델 개발) 1억원 등의 지원을 받았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성과= 광양시는 올 상반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2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업체는 '모아나눔'과 '(주)희디자인'으로 지난 2월 전남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선정돼 4300만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온 것을 인정받았다.

광양시 이정희 투자유치과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복지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 외에도 광양시에서 2011년 예비 사회적 기업에 접수하고 친환경 천연비누, 세탁비누를 제조한 '착한동네 초록비누'와 모시공예품, 김부각을 생산한 '남도향빈'은 인증이 무산돼 재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운영 신청 및 문의는 광양시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팀이나 전남 사회적경제진흥 지원센터를 방문해 컨설팅 지원을 받으면 된다. 문의(061-797-1968)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pyj4079@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장 특화 명품공원으로 만든다

시, 이용객 편의 향상 대책 추진
세족장 신설·화장실 추가 설치

광양시 태인동에 위치한 배알도 수변공원이 캠핑장 특화 명품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양시는 지난 9일 공원녹지사업소, 환경과 등 9개 부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영주 부시장 주재로 '배알도 수변공원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배알도 수변공원이 지역의 대표적인 캠핑장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

국 각지에서 수많은 캠핑객이 방문함에 따라 이용객 불편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받고 나선 것이다.

회의결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단기 과제에서부터 배알도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과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우선 모래사장 입구에 세족장(洗足場)을 신규로 설치하고, 피서철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공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과제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 주변 제방 설치와 안전지도, 시설물 관리, 자전거 일주 인증 등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 관리센터 운영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영주 부시장은 "배알도 수변공원은 많은 부서가 연계돼 운영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서간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캠핑장으로 특화된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pyj4079@



농협봉사대 80여명 매실 수확 봉사활동

동광양농협 임직원과 농협봉사대 80여명은 최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과 감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동광양농협 주부대학과 부녀회, 등산반으로 이루어진 농협 봉사대와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매실 수확과 감 열매 숙기를 돕고 농가의 애로를 청취했다. 한편 동광양농협 하나로 마트는 수매를 거쳐 선별된 매실을 5kg, 10kg 박스로 판매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장 부시장으로 격상

광양시가 지난 5일부터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비상 방역대책본부를 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최근 메르스 감염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메르스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이 높아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막연의 사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 광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광양시의 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대책본부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팀·감염병관리팀·조사팀·후송팀·대외홍보팀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메르스 의심 증상 주민신고 접수를 받으면 상담실에서 상담후 환자 이송과 검체 수거를 지원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마스크 400개 포함)와 3중 수송용기(5개)를 비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중이다.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pyj4079@

광양경찰 참수리 IT봉사단 매화 정보화마을 PC 점검



광양경찰서(서장 정재운) 참수리 IT봉사단은 최근 다압면 광양매화 정보화마을을 방문해 PC점검 등 IT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화 정보화마을에는 30여 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잦은 컴퓨터 고장과 악성코드·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 광양경찰은 다문화가정·시터민 등 정보와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IT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친근한 경찰상을 보여주고 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광양제철 '분야별 직무 노하우 모음집' 제작 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 품질기술부가 기술전문가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품질기술부는 원료시험과 수질·냉연·선강·화학·후판 분석 등 6개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직원 28명을 선정해 이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각종 지식과 노하우, 작업표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고숙련 직원이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되도록 전 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취지다.

지난해 1월부터 28명의 사내 전문가가 제작한 '분야별 직무 노하우 모음집'은 정확한 화학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이론 등을 상세히 담고 있어 후배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사회적기업 (주)포스플레이트(왼쪽)와 광양지역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돕는 광양시 사회적기업센터 개소식 모습.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계잡지입니다.

지방지사 (061)

광신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율보군소	02)313-5962

시내지역

광천	360-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6-5530
북광주	525-378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683
송하	678-6605
신안	512-1732
양산	6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천	512-8116
운천	371-8818
월곡	961-2339
중광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500
침단	8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남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8662